

제공일자: 2010.

문의: 홍보실(T. 031-7400- Fax. 031-7400-655)

우 481-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(시흥동298) <http://www.koica.go.kr>

## 제목 : KOICA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연구결과 발표

한국국제협력단(KOICA, 이사장 박대원)은 국제원조사회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원조효과성 및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한 「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: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」 연구를 실시하고 오는 2월 동 보고서를 출간한다. 동 보고서의 특징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분야, 지역, 규모 및 원조 방법 면에서 정의하고, 방대한 실증적 분석작업을 통해 동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교육, 보건, 행정제도, 정보통신, 지역사회, 산업 및 에너지, 환경 섹터 하의 세부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.

한국국제협력단 (KOICA)는 「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: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(저자: 정우진 연구원)」보고서가 출간되었다.

"한국형 개발협력 모델" 보고서는 한국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공적 개발 원조 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: ODA)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한다. 이 모델은 한국 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.제도.기술을, 우리의 경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있는 수원국과 공유하는 것이다. 특히 이는 한국이 산업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타 공여국과 차별화하여 성과를 증명해 온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된다.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스케일로,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 역량 강화의 요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젝트, 봉사, 연수, 민간협력이라는 다양한 원조양식 (Aid modality)을 통합하여, 협력 대상국의 국가 및 섹터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형 접근법 (Program-based approach)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

정이다.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개도국의 개발여건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규범 준수와 타 공여기관과의 조화를 통해 국제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
본 보고서는 그간 추상적으로만 언급된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을 분야, 지역, 규모 및 원조 방법 면에서 정의하고, 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교육, 보건, 행정제도, 정보통신, 지역사회, 산업 및 에너지, 환경 섹터 하의 세부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있다. 또한 이렇게 선정된 한국형 모델 사업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원조 사업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. 이는 한국이 본격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으나, 실체가 불투명했던 한국형 ODA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하여 구체화한 실증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.

동 연구과정에서 국제협력단은 외교부등 대외무상원조 주무 부처 및 시행기관, 시민사회, 학계, 기업 등 다양한 ODA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섯 차례 개발정책 포럼과 및 외부 발표회를 실시하였다. 동 보고서에는 국.내외 국제개발 전문가들의 인터뷰 뿐 아니라, OECD DAC 회원국 및 한국 ODA 통계에 대한 비교 분석, KOICA의 분야별 사업 성과에 대한 방대한 검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.

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는 현재 약 30여개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시행중으로 원조분절화 문제의 극복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, 동 연구는 한국의 다양한 개발협력기관들이 협력하여 적은 자원으로도 원조효과성을 살릴 수 있는 “선택과 집중”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는 또한 한국이 2010년부터 새로운 DAC 회원국이자 제 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(HLF4)의 주최국이며, 전통 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간의 교량적 역할자로서 대안적인 원조 모델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KOICA는 2010년, 동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각 섹터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모델링에 대해 후속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, 정부, 학계, 연구기관,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 모델을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 동 연구 보고서는 유관기관에 배포 중이며, 국제협력단 웹사이트 (<http://www.koica.go.kr/>)의 “ODA 알기 - ODA 연구” 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배포 문의: 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031-740-0307